

전자신용장의 활용범위와 ‘전자화’ 정도에 대한 연구: 실무자적 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Scope and the Electroniza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in the
Practitioner's Perspective

정용균(Yong-Kyun Chung)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 교수(제1저자)

정재연(Jae-Yeon Jeong)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전자신용장의 거시적 분석 | 참고문헌 |
| III. 전자신용장의 미시적 분석 | Abstract |
| IV. 애로사항과 개선안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자신용장의 활용범위와 전자화 정도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의 거시적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전자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신용장결제방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개별 은행들을 선정하고, 이들 개별은행의 미시적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의 활용과 전자화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4대 시중 은행 중 두 곳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전자신용장의 활용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는 EDI신용장과 e-L/C, 그리고 전자선하증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e-L/C와 e-B/L은 활용도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EDI신용장의 경우는 거시적 차원이나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차원에서 신용장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제어 : 전자신용장, EDI 신용장, e-L/C, 전자선하증권

* 본 연구결과물은 제1저자가 연구년 기간 동안 강원대학교로부터 2012년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I. 서론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수출행위의 근본목적이 대금회수에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에 걸쳐서 신용장결제방식은 국제결제방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유효한 방식으로서 널리 사용되어왔다.¹⁾ 그러나 최근 2천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금결제에서 신용장이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반면, 송금결제(T/T)방식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국의 본사와 해외 공장 및 지사간의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안전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장결제방식 대신에 청산계정(open account) 방식이 사용되는 등 대금결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신용장의 가장 큰 장점은 여타 결제수단에 비하여 대금회수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Bons et. al(1996)에 의하면, 신용장결제방식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 신뢰관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작동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²⁾ 신용장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의 대금결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꼼꼼하게 신용장 조건과 실제 선적서류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조사한다. 그 결과 신용장 관련 선적서류의 거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금회수 과정의 지체를 불러일으킨다.³⁾ 이는 결국 신용장결제방식의 가장 큰 단점인 신속성의 훼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신용장결제방식은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립된 국제무역상의 결제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기 때문에,⁴⁾ 무역관습을 중시하는 업계에서는 신용장결제방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자신용장결제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신용장은 신용장제도가 본래 가지고 있던 안전성에 부가하여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자신용장제도는 사실상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속성을 부가시킨 전자신용장제도

1) 오늘날의 화환신용장제도는 19세기 초에 기존의 여행자 신용장제도에서 뉘 발전된 것이다. 신용장결제방식은 원래 이태리에서 13세기에 개발되었으며, 17세기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에도 충분히 이 제도가 알려지게 되었다. Ellinger Peter and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Oxford and Portland, Oregon, 2010, p.1.

2) Bons, Roger, W. H., Ronald M. Lee, and Rene W. Wagenaar, "Implementing International Electronic Trade Using Open-EDI", submission for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May, 1996, p.12.

3) 이러한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UCP600에서는 신용장결제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UCP500에서는 서류심사시간이 제7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 시간(reasonable time)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UCP600 제14조 b항에서는, reasonable time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고 서류심사시간이 제5은행영업일로 단축되었다. Ellinger Peter and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Oxford and Portland, Oregon, 2010, p.39.

4)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노력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오면서, 신용장결제방식과 관련된 분쟁의 여지는 감소되었고, 법조계에서도 관련판례가 축적됨에 따라, 신용장결제방식은 무역관행으로 자리 잡아 왔다.

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관행을 중시하는 무역업계의 특성과 전자신용장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점도 그 배경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전자신용장에 대하여 활발한 토의가 있어 왔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상옥·이정희(2006)는 보안 및 인증차원에서 신용장 전자화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채진익(2008)과 오가열(2008)은 전자신용장 운용의 개선방안과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태환·최석범(2009)은 일련의 두 논문에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할 때의 실무상 문제점을 고찰하고, 전자신용장과 국제법규와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이강숙·강원진(2010)과 한민정·안병수(2010)는 신용장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심사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장청·김종철(2011)이 무역결제 상의 중요한 서류인 환어음의 전자화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였으며 류승열·정윤세(2012)는 SWIFT FileAct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제무역결제의 전자화를 연구하였다. 한편 전자신용장과 관련하여 중요 선적서류인 선하증권의 전자화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심종석·정희원(2010)은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정윤세(2011)와 김은주(2011)는 전자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전자운송서류의 문제점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채훈·이대욱·최광호(2012)는 전자선하증권의 실용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편 법적인 차원에서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규명하는 시도도 있었다. 고명규(2007)는 불레로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양석완(2008) 역시 개정 상법상의 전자선하증권의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⁵⁾

신용장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동향을 요약한다면,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제도적, 법학적 관점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무업계의 입장이기보다는 제3자인 학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⁶⁾ 대부분 학계의 입장은, EDI 신용장이든 e-L/C 든 전자신용장은 실제로 사용되는 빈도수가 매우 적고, 이를 활용하기에는 저해요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자신용장과 관련하여 학계의 논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전자신용장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EDI 신용장이든 e-L/C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전자신용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고, 전자신용장이 종이신용장을 얼마나 대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규명해 보는데

5)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역학계에서 신용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반면, 특히 외국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주로 법학계에서 신용장 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전자선하증권 관련 연구들도 배출되고 있다. Svensson, Bjorn, *Electronic Bills of Lading*, Master Thesis, Autumn 2010. Marusic, Miran, *A Gateway to Electronic Transport Documentation in International Trade: The Rotterdam Rules in Perspective*, Master Thesis, Spring 2012 등을 참조하십시오.

6) 기존의 문헌적 연구와는 달리 실증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문희철·임성범·문화·형정(2007)은 불레로와 트레이드카드를 중심으로 무역결제방식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분석한 바 있다. 김희철·유수철·한상훈·김태환(2011)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도를 실증적 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외환, 상역 부문에서 실제로 얼마나 전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은행권 전체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체적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개별은행 두 곳을 선정하여 개별은행의 차원에서 전자신용장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신용장의 전자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전자신용장의 활용에 대하여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전자신용장 관련 문헌과의 차별성을 기한다. 셋째, 학계와 실무업계에서 제기하는 신용장의 전자화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넷째, 이러한 실무계와 학계의 입장에서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전자신용장의 거시적 분석

1. 무역원활화와 전자무역

어느 국가의 수출경쟁력에는 단순히 수출제품의 품질과 가격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개별기업 제품 자체의 경쟁력과 더불어 국가의 무역인프라의 수준 역시 수출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양준석(2004)에 의하면, 무역원활화는 국제무역 절차의 간소화와 조화로 정의된다.⁷⁾ 무역인프라 구축에 따르는 비용절감으로 나타나는 무역원활화 정도는 일국의 무역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전자무역을 통한 paperless trade의 실현은 통상정책상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⁸⁾ Mei and Dinwoodie(2005)에 의하면, 중국에서도 전자무역의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석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의 주요 석유회사들은 중국 항구에서의 물류지체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은행내부 절차상의 지체와 우편 송달과정에서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선하증권보다 앞서서 유조선이 목적항에 먼저 도착함에 따라서, 석유의 인도지체

7) 양준석, "WTO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9권 제3호, 2004년, pp.59-80. 정용균(2005)에서 재인용.

8)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APEC 등의 무역자유화 노력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자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시된 개념이다. 정용균, "국제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결제방식에 대한 연구: 블레로 프로젝트와 트 레이드카드의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통권 제22호, 2005년 3월, p.95. 보고르선언에서 천명되었던 무역자유화의 정신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부문별 조기 자유화 조치(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EVSL)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Chung, Yongkyun and Yongwhan Park,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APEC Study Series, 02-02,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2, p.9.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과 거래하는 서방 석유회사들은 이러한 물류지체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전자선하증권을 사용하는 등 전자 선적서류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⁹⁾ Bahram et. al(2012)에 의하면, 최근에는 중동지역 국가들도 EDI를 활용한 전자무역의 활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¹⁰⁾ 따라서 향후 전자무역은 단순히 IT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란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한국의 무역원활화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World Bank(2012)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원활화 부문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¹¹⁾ 이처럼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전자무역의 활성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1991년 무역자동화 추진을 위하여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KTNET의 설립이후, 무역 통관 물류 관련 서류를 전자화해왔다.¹²⁾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 요건확인(수출신용장, 수입신용장, 내국신용장 구매확인, 대금결제, 원산지증명, 적하보험), 물류(수출화물, 수입화물 통관목록, 컨테이너적출입 적하목록 취합시스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통지, 항공화물운송장 통지 등의 각종 무역서식들이 KTNET에 의하여 생성되고 있다. 정재우·박호용(2010)에 의하면, 2009년 KTNET이 한 해 동안 중계한 전자무역문서는 567종에 이르렀으며 그 건수는 2억4천6백만 건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외환 요건확인 글로벌 관련문서가 193종, 약 2천6백만 건이었으며, 통관 및 관세 환급 관련 문서가 96종, 약 3천9백만 건, 물류관련 문서가 207종, 1억7천2백만 건에 이르고 있다.¹³⁾ 특히 무역결제분야에서 신용장 통지의 전자화 동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만 하더라도 주로 해외은행으로부터 국내은행으로 텔렉스 망을 통해서 신용장이 통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우편을 통해서 화환신용장이 국내은행으로 내도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 금융결제원이 SWIFT망에 가입하면서부터 대부분의 신용장이 SWIFT망을 통해서 내도되고 있는 등 신용장 부문의 전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9) 유조선의 하루 비용은 미화 10만달러를 넘고 있다. Mei, Zhilang and John Dinwoodie, "Electronic Shipping Documentation in China's International Supply Chain",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0, No. 3, 2005, p.198.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지적되어온 선하증권의 위기 현상이다.

10) Bahram, Shomali, P., Nasser Saei di, Maryam T. Fard, and Shahram Behbahani, "Appearanc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s a New Innovation in Maritime Trade", *Advanced Research in Economic and Management Sciences(AREMS)*, Vol. 6, November 2012, pp.238-245.

11)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출에 있어서 서류건수는 3건으로 가장 낮은 부분에 속하고 있으며, 소요일수는 7일로 여타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컨테이너이용료 부문에서는 680달러로서 중간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원활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수출컨테이너 이용료가 456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2*, 한국무역협회(2013) 자료에서 재인용.

12) 정운세,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3권 제4호, 2011년 12월, p.52.

13) 정재우·박호용,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주요 국가별 전자무역 논의 및 동향 분석과 그 시사점",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5권 제4호, 2010년 8월, pp.300-301.

2. 전자신용장 활용도

신용장의 ‘전자화’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종이로 출력하여 사용되는 EDI 신용장이 출현하였다. EDI 신용장은 SWIFT망을 통해서 내도하나 이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이로 출력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종이없는 무역’이라는 전자무역의 이상을 완벽하게 실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EDI 신용장은 은행과 수출 기업 간 물리적 네트워크의 연결과 EDI 업무를 처리할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므로 자본이 빈약한 중소기업에로의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이러한 EDI 신용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없이도 인터넷에 바로 접속하여 사용되는 e-L/C가 출현하였다.¹⁴⁾ e-L/C는 수출상에게 전송되는 과정에서 금융결제원과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운영하는 uTradeHub을 경유하면서 신용장 잔액정보가 저장되며, 은행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고서도 매입 등의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⁵⁾ 본고에서는 EDI 신용장과 e-L/C를 포괄하여 전자신용장으로 칭하기로 한다.¹⁶⁾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신용장의 인프라 개선 측면에서는 현저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전자무역의 구현물인 전자신용장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신용장의 전자화 수준과 전자신용장의 활용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경제전체의 거시적 차원에서 신용장의 전자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무역결제부문의 전자신용장 활용범위를 살펴보면 크게 전자적 수단에 의한 수출신용장 통지부문과 전자선하증권 발급부문으로 대별할 수 있다.

14) 한국무역협회, 자료, 2013. 본 연구 과정에서, 한국무역협회와 KTNET의 도움을 받아서 EDI 신용장과 e-L/C 간의 차이점을 밝힐 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15) EDI 신용장은 SWIFT 신용장의 각 항목을 항목별로 재구성하여 신용장을 생성하는 반면, e-L/C는 SWIFT 신용장 전체 항목을 1개의 항목으로 합하여 신용장을 생성한다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다.

16) 한국무역협회 문헌에서는 e-L/C 만을 전자신용장으로 칭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EDI신용장도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신용장을 전달하므로 전자신용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일부저자의 분류방식을 원용하면, 신용장의 개설, 지급 상환의 과정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되는 신용장을 ‘광의의 전자신용장’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신용장의 개설에서부터 상환이 완료될 때 까지 전체의 순환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처리되는 대금결제과정으로 정의한다면 이는 ‘협의의 전자신용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면, EDI 신용장은 광의의 신용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며, e-L/C는 협의의 전자신용장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무역 연구회, 『전자무역의 이해와 전개』, 브레인코리아, 2002, p.409 참조.

〈표1〉 외환·상역부문 전자무역활용도

| 항 목 | 전체건수 (추정) | 2011년 실적 | | 2020년 목표 | |
|----------|--------------|----------|-------|----------|------|
| | | 전자화건수 | 이용률 | 전자화건수 | 이용률 |
| 수출신용장 통지 | 40만건 | 97,200건 | 24.0% | 40만건 | 100% |
| e-B/L 발급 | 40만건 | 59건 | 0% | 30,000건 | 8%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3.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표1>에서 보듯이, 수출신용장 통지 부문에서 보면 2011년 전체 수출신용장 통지건수가 약 40만 건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9만7천여 건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통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신용장 통지에 있어서는 약 24%의 '전자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무역결제의 전자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고절차의 핵심서류인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불레로 선하증권 등 다양한 선적서류의 전자화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로 사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하증권의 전자화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선하증권 발급 추정건수 40만 건 중에서 전자선하증권이 활용된 경우는 불과 59건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적서류의 전자화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윤세(2011) 등 상당수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 국가 간 연계구축망이 부재하고, 서류의 보안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인증상의 문제 등 전자선하증권(e-B/L)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 이러한 저해요인은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Mei and Dinwoodie(2005)는 중국에서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하여 선하증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분석에 의하면, 첫째, 응답자의 92%는 전자선하증권의 안전성에 의문을 표시하였으며, 중국해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중국의 법제도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나온 부분으로는 기술적 문제로서, 사용자들은 전자선하증권을 구현하는 정보시스템의 기능과 기술적 지원 여부에도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아울러, 전자선하증권의 활용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염려도 나타나고 있다.¹⁸⁾

17) 정윤세,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3권 제4호, 2011년 12월, p.51.

18) Mei, Zhilang and John Dinwoodie, "Electronic Shipping Documentation in China's International Supply Chain",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0, No. 3, 2005, p.202.

〈표2〉 수출신용장 통지현황(2011)¹⁹⁾

| | 종이 신용장 | EDI 신용장 | e-L/C | 합 계 |
|-------|------------|---------|--------|----------|
| 국내은행 | 10.1만건(추정) | 95,607건 | 3,168건 | 20만건(추정) |
| 외국계은행 | 19.7만건(추정) | 2,819건 | 17건 | 20만건(추정) |
| 계 | 29.8만건(추정) | 98,426건 | 3,185건 | 40만건(추정)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3.

수출신용장 통지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수출신용장 통지현황을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으로 세분화해 보면,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간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은행은 어느 정도 신용장 통지의 전자화가 추진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계은행들은 아직도 종이문서로 된 신용장을 신용장 통지에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신용장의 활용도는 현저히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표2>에서 보듯이,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EDI 신용장의 사용은 9만5천 건 이상인데 비하여 외국계은행의 EDI 신용장의 사용은 불과 2,81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e-L/C의 경우에도 국내은행은 2011년도에 총 3168건을 활용한 데 비하여, 외국계은행은 불과 17건에 그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수출신용장 통지에 있어서 전자신용장 활용은 외국계은행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이처럼 국내은행 보다도 외국계은행들이 전자신용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외국계은행의 전자화 정도가 우리나라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데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여타 국가의 전자무역 인프라 정도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낮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전자신용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로 상대적 저활용성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그러한 논리를 적용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재우·박호용(2010)가 보여주듯이, 싱가포르는 전자항만 구축에서 세계적 차원의 선두주자이며, 한국 일본 뿐 만 아니라 최근 중국도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전자결제인프라 구축의 차이가 국내은행과 외국계

19) 본 연구에서는 EDI 신용장과 e-L/C를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은 모두 전자신용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 e-L/C는 우리나라 경우도 최근에서야, uTradeHub 구축을 통하여 국제무역의 절차를 단일창구(single window)로 통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다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여타 국가들은 사실상 e-L/C 활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1) 일본은 항만운영에 EDI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해운물류 분야에서 single window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중국은 2004년에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현재 중앙은행을 포함한 11개 정부부처와 23개 항만을 컴퓨터로 연계하는 전자개항장(China e-port)을 구축하였다. 홍콩정부는 일찍이 1997년에 G2B 거래의 경우 세관에서 EDI로 처리되었다. 싱가포르 정부 역시 전자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전자거래법을 제정하였으며, 전자상거래용 ADR제

은행 간의 전자신용장 차이를 불러왔다는 논리가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은행들의 e-L/C 시스템 구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3>에서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e-L/C 시스템 구축비율은 전체 시중은행의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 진출해있는 외국계은행은 e-L/C 시스템 구축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표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e-L/C를 구축하고 있는 은행은 외환은행 등 11개 은행이고 아직 e-L/C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은행은 수출입은행 등 6개 은행이다.

<표3> e-L/C 시스템 구축은행 현황

| 구분 | 국내은행 | 외국계은행 |
|------|--|-----------|
| 개발완료 | 외환, 신한, 하나, 농협, 제일, 국민, 기업, 우리, 광주, 시티, 수협 | 도쿄미쓰비시UFJ |
| 미개발 | 수출입, 부산, 대구, 산업, 전북, 제주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3.

외국계은행은 도쿄미쓰비시UFJ를 제외하고는 어떤 은행도 e-L/C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결제인프라 구축의 차이가 국내은행과 외국계은행 간의 전자신용장 차이를 불러왔다는 논리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장의 전자화 등 무역결제의 전자화를 달성하여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e)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계은행의 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외국계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용장 내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무역 특히 대금결제 부분에서 Paperless Trade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Mulligan(1999)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내부의 유관기관인 은행, 운송, 보험, 세관간의 EDI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²²⁾, 무역상대국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과 국가 간 전자무역 연계망의 구축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된다.

외국계은행의 전자화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외국의 수출입관계 당사자들은 위험기피자로서, 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염려가 사라질 때 까지는 기존의 무역관

도까지 마련하는 등 아시아에서도 이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재우·박효용,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주요 국가별 전자무역 논의 및 동향 분석과 그 시사점”,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5권 제4호, 2010년 8월, pp.290-297.

22) Mulligan, Robert, M., “EDI in Foreign Trade: A Perspective on Change an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Logistics Information Management*, Vol.12, No.4, 1999, p.299.

습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설명하는 방법이다. Bons et. al(1996)에 의하면, 국제무역에 EDI 무역시스템이 확산되려면, Williamson(1985)이 제시한 전자적 위계구조들(electronic hierarchies)이 갖추어져야 한다.²³⁾ 즉 거래 관계가 장기간에 걸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여야 한다.²⁴⁾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제무역이란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간의 거래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 거래빈도수가 낮은 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며, 더구나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하는 상대방과의 거래이며 당연히 서로 간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보다는 안전을 중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Bahram et. al(2012)의 중동지역 면담조사에서도, 수출입관계당사자들의 보수적 견해가 전자선하증권의 실행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 활용도가 낮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따라서 외국계은행에 전자신용장시스템이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간의 격차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에 위협에 대한 인식 정도가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무역결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외국계은행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은행은 전자화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한 추가적 설명은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라는 또 다른 변수가 매개변수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IT 우선 정책을 시행하여서, 인터넷 등 우리나라의 IT 인프라 수준을 제고시킨 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등 세계유수의 글로벌기업이 전자산업에 포진하고 있어서 이들이 금융산업의 인프라 구축에도 전후방연관효과를 발휘한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겠다.²⁶⁾

Ⅲ. 전자신용장의 미시적 분석

전 절에서는 한국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신용장의 전자화를 분석하였으나 이는 전체적인 실루엣만 보여준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개별은행들이 신용장의

23) Bons, Roger, W. H., Ronald M. Lee, and Rene W. Wagenaar, "Implementing International Electronic Trade Using Open-EDI", submission for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May, 1996, p.2.

24) Williamson, Oliver,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ree Press, New York, 1985. Bons et al, p.2에서 재인용.

25) Bahram, Shomali, P., Nasser Saei di, Maryam T. Fard, and Shahram Behbahani, "Appearanc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s a New Innovation in Maritime Trade", *Advanced Research in Economic and Management Sciences(AREMS)*, Vol. 6, November 2012, p.238.

26) 마이클 포터교수의 다이아몬드모형에 의하면, 한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연관산업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화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고, EDI 신용장이나 e-L/C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시중은행별 자료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국내 4대 시중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그 중, 두 곳에서 신용장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본 절에서는 두 시중은행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전자신용장의 활용도를 분석하였다.²⁷⁾

1. 전자신용장의 은행별 활용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전자신용장 활용현황을 파악하고자 국내 시중은행 두 곳의 외환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은행내부의 자료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아, 개별은행에 대한 분석은 하나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를 제공한 시중은행은 A은행과 B은행이다.²⁸⁾ 시중은행 두 곳의 2011년과 2012년의 수출신용장 통지실적은 <표4>와 <표5>과 같다. A은행의 경우 2011년, 전체 수출신용장 통지건수 중 종이신용장으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의 5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EDI 신용장으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의 39.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e-L/C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중에서 0.6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직 e-L/C의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2012년도와 2011년도의 경우, 전체 수출신용장 통지건수 중 종이신용장으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의 54.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EDI 신용장으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신용장의 전자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e-L/C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중에서 0.7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직 e-L/C의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1년도와 2012년도 2년간을 비교해 보아도 단 이 년 만에 종이신용장을 통한 수출신용장 통지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EDI 신용장을 통한 수출신용장 통지비율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L/C의 경우도 2011년에 비하여 2012년이 미미하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A은행의 경우, 점차로 종이신용장에서 전자신용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중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모으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며 본 절에서 전개한 논의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추후연구에서 보다 많은 자료의 보강이 필요하다.

28) 두 은행 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체적인 은행 명칭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표4〉 수출신용장 통지 현황(구성비)

| 구분 | 연도 | 종이신용장 | EDI 신용장 | e-L/C | 합계 |
|-----|-------|--------------------|-------------------|----------------|------------------|
| A은행 | 2011년 | 5,700건 (59.89) | 3,753건 (39.43) | 65건 (0.68) | 9,518건 (100) |
| | 2012년 | 4,981건 (54.69) | 4,058건 (44.55) | 69건 (0.76) | 9,108건 (100) |
| | 계 | 10,681건 (57.34) | 7,811건 (41.94) | 134건 (0.72) | 18,626건 (100) |

자료: A은행, 2013.

한편 B은행의 경우에는 2011년의 경우, 전체 수출신용장 통지건수 중 종이신용장으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EDI 신용장으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e-L/C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중에서 1.5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서, A은행의 두 배 가까운 활용도를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전체 수출신용장 통지건수 중, 종이신용장으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의 45.5%를 차지한데 비하여, EDI 신용장으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전자신용장을 이용한 신용장 통지가 종이신용장을 이용한 신용장 통지를 앞질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e-L/C로 수출신용장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중에서 1.53%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서, 2011년도나 2012년도 양 기간에 걸쳐서 e-L/C의 활용도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5〉 수출신용장 통지실적(구성비)

| 구분 | 연도 | 종이신용장 | EDI 신용장 | e-L/C | 합계 |
|-----|-------|--------------------|--------------------|----------------|------------------|
| B은행 | 2011년 | 13,731건 (52.75) | 11,900건 (45.72) | 397건 (1.53) | 26,028건 (100) |
| | 2012년 | 11,756건 (45.47) | 13,700건 (53.00) | 395건 (1.53) | 25,851건 (100) |
| | 계 | 25,487건 (49.13) | 25,600건 (49.34) | 792건 (1.53) | 51,879건 (100) |

자료: B은행, 2013.

전자신용장을 다시 EDI 신용장과 e-L/C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EDI 신용장 통지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e-L/C의 활용비율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자신용장은 통지만 전자방식(국내 은행과 업체와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나 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개설은행, 개설국가 기관(세관 등), 수익자가 모두 확인(인증)가능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고 제반 서류도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고 e-L/C 사용 비중은 A은행과 B은행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는 절대건수에서 뿐 만 아니라 구성비에서도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연구가 요망된다.

지금까지 논의를 전체적으로 보기위하여, A은행과 B은행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신용장 통지의 절반에 이를 만큼, 수출신용장 통지에 있어서 전자신용장의 확산은 명확해 보인다. 더구나 거시적 차원에서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면, 2011년도 전체 신용장 통지 중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통지된 경우가 24%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A은행과 B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 EDI 신용장을 통한 통지 비율이 각각 39.4%, 45.7%로 나타나고 있어서 은행에 따라서는 전자신용장을 통한 수출신용장 통지가 거시적 차원의 통지비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EDI 신용장 통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EDI 신용장의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EDI 신용장이 종이신용장에 못지않게 사용되게 된 것은, 종이신용장의 경우 은행 본점에서 신용장 접수 후 수익자에게 유선통지 후 가까운 영업 점이나 거래 영업점으로 전달하여 고객에게 수수료 징구 후 신용장을 교부하는 반면, EDI 신용장 및 전자신용장은 기업과 사전 약정된 전자(EDI) 방식으로 통지하므로, 고객이 직접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서, 종이신용장에 비해 편의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직접 은행에 가지 않은 만큼 거래비용이 줄어들어서, 무역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용을 절감해야하는 무역업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신용장 수수료

Williamson(1979)의 거래비용 경제학에 의하면,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은 적지 않다.²⁹⁾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Coase교수에 의하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원배분을 기업 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기업외부에서 수행하는 것 보다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파하

29) Williamson, Oliver, "Transaction-Cost Economics: The Governance or Contractual Relatio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79, pp.233-261.

고 있다.³⁰⁾ 이러한 거래비용적 관점은 Benston(1976)에서 보듯이 금융중개기관에도 적용되며, 전자신용장의 확산에 있어서도 적용가능하다. 즉 전자신용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종이신용장을 통한 거래비용보다 낮다면, 거래당사자들은 종이신용장 보다 전자신용장을 선호할 것이다. 반대로 전자신용장을 통한 거래비용이 종이신용장을 통한 거래비용보다 크다면 거래당사자들은 전자신용장 보다 종이신용장을 선호할 것이다.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신용장 거래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주요한 거래비용이라 할 수 있다.

〈표6〉 신용장 종류별 수수료 현황

| 은행 | 구분 | 종이신용장 | EDI 신용장 | e-L/C |
|-----|-------------|---------|---------|---------|
| A은행 | 통지수수료 |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 신용장개설수수료(u) | 30,000원 | 15,000원 | - |
| | 신용장개설수수료(s) | 20,000원 | 10,000원 | - |
| B은행 | 통지수수료 |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 | 양도수수료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 | 매입수수료 | 25,000원 | 25,000원 | 25,000원 |

전자신용장과 종이신용장의 거래비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두 곳의 신용장 종류별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종이신용장의 통지수수료가 20,000원인데 반해 EDI 신용장과 전자신용장의 통지수수료는 10,000원으로 50% 수준이며, 신용장개설 수수료도 EDI 신용장과 전자신용장의 경우 종이신용장의 50%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중은행들인 A은행과 B은행 관계자들은 대체적으로 종이신용장의 수수료율이 1이라면, EDI 신용장과 e-L/C의 수수료는 그 절반정도라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종이신용장 관련 수수료보다 전자신용장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함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전자신용장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e-L/C의 경우에는 종이로 출력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EDI 신용장에 비하여 거래비용은 더욱 낮아진다. 이처럼 자원배분의 향방과 조직의 구성을 결정하는 거래비용이 전자신용장의 경우가 종이신용장보다 작으므로,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이신용장은 전자신용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0) Coase, Ronald, "The Nature of the Firm", in Geoge Stigler and Kenneth Boulding (ed), *A.E.A. Readings in Price Theory*, Richard Irwin Inc, 1952, pp.331-351.

3. 통지절차 및 네고절차

두 시중은행 관계자에게 통지절차와 네고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A은행 관계자는 종이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은행 본점에서 신용장이 접수된 후에, 은행이 수익자에게 우선으로 통지한 후에 가까운 영업점이나 수익자의 거래 영업점으로 전달하고, 고객에게 수수료를 징구한 후에 신용장을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고절차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징구 후 약정에 따라 신용장 조건에 따라 할인료 징구하고 거래 영업점에서 사전매입하거나, 추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EDI 신용장 및 전자신용장 통지방법은 기업과 사전 약정된 전자(EDI) 방식으로 통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네고 및 대금지급절차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징구 후 약정에 따라 거래 영업점에서 사전매입하거나 추심하고 있다. 이때 추심 건은 상대은행으로 부터 대금 입금 후 지급하고 있었다.

한편 B은행 관계자는 종이신용장 통지절차는 영업점 출력 후 고객이 내도하면 고객이 수령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EDI 신용장의 경우는 거래 영업점에서 해당고객에게 EDI로 송부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e-L/C의 경우는 은행 본점에서 일괄 송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네고 절차는 종이신용장의 경우는 수출선적 서류들이 영업점에 제시된 후, 담당 은행원의 심사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선지급하는 매입절차를 통하거나 수출대금이 입금된 후 지급하는 추심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전자 신용장의 경우는 모든 서류를 전자화하여 본점에서 처리한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종이신용장에 비하여 전자신용장들의 거래비용 역시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³¹⁾

4. 전자선하증권

본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은, 신용장 관련 서류 중에서 핵심서류라고 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자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자선하증권 관련 자료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용이하지 않았다. 다만, B은행으로부터 최근 전자선하증권 관련 건수가 12건이라는 통계를 전달받았다. 따라서 거시적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선하증권 처리건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현저히 낮은 것은 Bons et. al(1996)이 제시하듯이 선하증권 자체가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약속을 변경시키는

31) 다만 전자신용장이 종이신용장 보다 반드시 거래비용이 낮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안문제는 오히려 전자신용장이 종이신용장 보다 불확실성이 더욱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자신용장 거래비용이 종이신용장을 통한 거래비용보다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래비용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에서 발생하는 내재적 불확실성이라는 측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작용을 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³²⁾ 더구나 선하증권 자체는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상하는 유가증권이며, 결국 운송중인 상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다.³³⁾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서류를 전자화한다는 것은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Marusic(2012)과 Svensson(2010) 등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해운물류업계는 지속적으로 선적서류의 전자화를 시도하여 왔다. 예를 들어 거의 삼십년 전인 1985년 체이스맨하탄은행과 INTERTANKO는 SeaDocs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전자선하증권 중앙등록기구를 창설하였으며, 1990년에는 CMI가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 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94년에는 은행, 무역업자, 운송업자, 통신회사들이 모여서 볼레로(전자선하증권전자등록기구: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또한 2003년에는 Electronic Shipping Solution이라는 전자선적무역회사가 전통적 선적서류를 무형화하기 위하여 ESS-Databridge라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³⁴⁾ 이러한 국제해운물류업계와 은행의 지속적인 노력에 비추어 볼 때, 현재는 매우 미미하지만, 장래에는 전자선하증권 역시 사용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IV. 애로사항과 개선안

1. 애로사항

본 절에서는 e-L/C가 많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e-L/C의 활용실적은 미시적 분석으로 살펴보거나 거시적 분석으로 살펴보거나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 A은행 관계자와 B은행 관계자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A은행 관계자는 e-L/C는 신용장 통지는 전자방식(국내 은행과 업체와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나 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개설은행, 개설

32) Bons, Roger, W. H., Ronald M. Lee, and Rene W. Wagenaar, "Implementing International Electronic Trade Using Open-EDI", submission for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May, 1996, p.4.

33) 광윤직, 『물권법』, 제7판, 박영사, 2011, p.312.

34) Marusic, Miran, *A Gateway to Electronic Transport Documentation in International Trade: The Rotterdam Rules in Perspective*, Master Thesis, Spring 2012, pp.43-51. Svensson, Bjorn, *Electronic Bills of Lading*, Master Thesis, Autumn 2010, pp.25-33. Ivarsson, Magnus, *World Wide Trade, A Manual Affair; A Study of the Current Position of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Goteborgs Universitet, 2011, pp.47-57. Delmedico, Amedeo, "EDI Bills of Lading: Beyond Negotiability", *Hertfordshire Law Journal*, Vol. 1, pp.95-100.

국가 기관(세관 등), 수익자가 모두 인증가능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련 서류도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결국 e-L/C란 것도 궁극적으로 e-Nego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네고를 전자화하기 위해서는 e-L/C 뿐 만 아니라, 전자보험증권(e-I/P), 전자원산지증명서(e-C/O), 전자선하증권(e-B/L) 등이 같이 전자화되어야 할 것이다.³⁵⁾ 그러나 FTA가 활성화되는 21세기에 있어서 향후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가 될 원산지 증명서는 현재 싱가포르와만이 e-C/O를 서로 인정하는 단계에 와있을 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련 무역서식들의 전자화와 표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태환·최석범(2009)에 의하면, 수출신용장이나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역관련 서식들의 국가별 표준화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관송장이나 포장명세서, 중량용적증명서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등 선적부속서류들은 표준화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자신용장이 제대로 실현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³⁶⁾

한편 B은행 관계자는 첫째, 현재의 전자신용장 시스템이 불안정한 것도 전자신용장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큰 이유로 보고 있었다. 이창숙·강원진(2010)에 의하면, 시스템은 언제든지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³⁷⁾ <표7>에서 보듯이, 이천년대 들어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보고된 시스템 오류 분쟁건수는 감소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04년 이후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7> 시스템 오류 분쟁현황

| 년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 건수 | 2 | 4 | 4 | 12 | 13 | 6 | 10 | 11 |
| 구성비 | 0.4 | 0.5 | 0.3 | 1.2 | 0.7 | 0.3 | 0.4 | 0.3 |

주: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07, p.35, 2008, p.37.

한편 B은행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전자신용장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이처럼 시스템 구축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는 점은 이미 채훈·이대욱·최광호(2012)이 전자선하증권 활용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원래 전자선하증권을

35)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e-Nego 시스템 구축현황』, 2009.

36) 김태환·최석범, “전자신용장 거래 실무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0권 제3호, 2009년 8월, p.234.

37) 이창숙·강원진, “신용장 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심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2권 제2호, 2010년 6월, p.96.

도입하여 거둘 수 있는 이점은 서류의 전자적 유통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적 신호에 의한 서류전송으로 선하증권의 유통과 관련된 시간을 절약하는데 있다.³⁸⁾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 보면, 전자선하증권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중앙등록기관이 필요하고, 전자적 메시지의 송수신을 위한 서버 등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업체는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거두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과다하게 책정할 위험이 있다. 이는 이러한 전자무역 서비스 이용자 입장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DI 신용장을 송수신하는 SWIFT 시스템의 사용 가격이 높은 장벽이다. 현재의 가격은 은행 및 대형고객에게 맞추어져 있어서 중소수출기업이 활용하기에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³⁹⁾ 김태환·최석범(2009) 역시 불례로 전자선하증권이 실패한 이유로서 서비스 고가전략을 시행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초기에 시스템의 이용가능성도 희박한데 사용자에게 고가의 가입비용을 요구함으로써 시장진입에 실패하였다고 보고 있다.⁴⁰⁾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센터에서는 전자신용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무역업체 관점과 은행의 관점으로 이분화하여 살펴보고 있다. 전자신용장의 활용저조현상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내 수출입업체의 문제점으로는 전자신용장에 대한 인식부족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이 부정적 인식 또는 인식부족이라는 점은 채훈·이대욱·최광호(2012) 역시 전자선하증권 활용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한 업무에는 적응되었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구축한 기업이 많지만, 그 이상의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거래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전자무역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데 오래 걸릴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비용문제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은 아직 전자선하증권시스템이 시기상조라는 인식도 있다고 한다. 이는 전자무역에 대한 이해부족이 그 원인이며, 채훈·이대욱·최광호(2012)는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⁴¹⁾

38) 채훈·이대욱·최광호, “전자선하증권의 실용화를 위한 저해요인의 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13권 제4호, 2012년 11월, p.234.

39) 채훈·이대욱·최광호, “전자선하증권의 실용화를 위한 저해요인의 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13권 제4호, 2012년 11월, p.240.

40) 김태환·최석범, “전자신용장 거래 실무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0권 제3호, 2009년 8월, p.235.

41) 채훈·이대욱·최광호, “전자선하증권의 실용화를 위한 저해요인의 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13권 제4호, 2012년 11월, p.235.

〈표8〉 전자신용장 활용 애로사항

| | | 시스템 구축비 응부담 | 부정적 인식 | 네고서류 의 전자화 미흡 | 서비스 수수료 과다 | e- UCP | 법제도 적 미비 | 국제인 프라 구축 | 전자서명, 인증 보안문제 |
|----------|------------|-------------------|-----------|---------------------|------------------|-----------|-------------|-----------------|---------------------|
| 실무 업계 | A은행 | | | ○ | | | | | |
| | B은행 | ○ | | | | | | | |
| | 한국무역 협회 | | ○ | ○ | | | | | |
| 무역 학계 | 채훈외 | ○ | ○ | | ○ | | | | |
| | 한민정 안병수 | | | | | ○ | | | |
| | 이창숙 강원진 | | | | | | | | ○ |
| | 채진익 | | | | | | ○ | | |
| | 심종석 정희원 | | | | | | | | ○ |
| | 이상옥 이정희 | | | | | ○ | | | ○ |
| 법 학계 | 고명규 | | | | | | ○ | | ○ |
| | 양석완 | | | | | | ○ | ○ | ○ |

둘째, 수출입업체가 90년대 부터 사용해 왔던 E D I 신용장에서 e-L/C로 변경하는 데 따른 부담을 들고 있다. 셋째는 전자신용장의 궁극적 목표인 e-Nego의 활성화가 지연되는 데 그 이유를 들고 있다. 한편 은행의 입장에서 e-L/C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서 첫째, 시스템의 이원화에 따른 부담을 들고 있다. 즉 종이신용장을 대체하는 전자적 대체물인 E D I 신용장과 e-L/C를 병행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두 가지 종류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은행입장에서 무역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부족한 것을 전자신용장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 들고 있다.⁴²⁾

전자신용장의 실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법제도적으로 과연 이러한 전자문서의 교환이 법적 효력을 갖느냐일 것이다. 이상옥·이정희(2006)에 의하면, 전자서류의 경우에는 원래 그 효력에 대해 당사자 간에는 사적 계약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거래의 이행 자체는

42) 한국무역협회, 내부 자료, 2013.

가능하지만, 제3자에 대하여도 동등한 효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거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전자화의 확산에 장애가 될 것이다.⁴³⁾ 양석완(2008)에 의하면, 전자선하증권은 서면성과 서명성 그리고 배서교부에 의한 양도방법 등 종이선하증권의 유가증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전자문서는 기존의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유가증권에서 권리와 결합되는 증권은 전자문서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한다.⁴⁴⁾ 둘째,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을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⁴⁵⁾ 셋째, 등록된 권리의 이전 역시 유가증권법 상의 양도방법인 배서 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개정상법 862조 제3항에 의하면,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은 종이선하증권의 유가증권적 특성인 서면성, 서명성, 배서 교부를 모두 충족시키므로 유가증권의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다.⁴⁶⁾ 따라서 전자선하증권의 경우 상당히 종이선하증권에 근접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전자신용장의 경우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아직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욱·이정희(2006)는 e-UCP 자체가 주로 전자기록의 제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라고 할 수 있는 신용장 발행과 통지, 서류심사기간, 전자기록에 대한 인증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⁴⁷⁾ 따라서 e-UCP와는 별도로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2. 개선안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외국계은행의 국내 지점들을 우리의 전자무역 시스템 내로 통합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외국계은행도 전자무역시스템 더 구체적으

43) 이상욱·이정희, “신용장 전자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7권 제2호, 2006년 6월, p.345.

44) 양석완, “개정상법상의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22권 제1호, , p.357.

45) 양석완, “개정상법상의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22권 제1호, , p.357.

46) 양석완, “개정상법상의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22권 제1호, , pp.357-358.

47) 이상욱·이정희, “신용장 전자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7권 제2호, 2006년 6월, p.345.

로는 e-L/C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선적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전자화 정도를 나타내는 전자선하증권(e-B/L)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화주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이 종이 선하증권의 법적 효력과 동등하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상법이 개정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전자신용장 관련 선적 서류 등이 모두 전자문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김태환·최석범(2009)은 전자신용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류부터 표준화작업을 통하여 전자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은행과 선사, 보험사 등의 표준화 성과와 가장 큰 서류들의 표준화를 통해 전자화를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전자신용장 거래에서는 모든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시되어야만 서류의 자동점검이 가능하고 이러한 자동점검을 수행하는 검색엔진의 경우에도 서류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적 서류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서류의 표준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⁴⁸⁾ 김태환·최석범(2009)은 전자신용장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환어음도 전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전자환어음의 도입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내국전자환어음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전자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국내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내국전자신용장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데, 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내국전자환어음의 도입이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⁴⁹⁾

넷째, e-L/C 및 e-Nego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초기 이용자의 빠른 증가와 확산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e-L/C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파격적인 가격혜택과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무상교육 등,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전자무역시스템과 같은 참여형 네트워크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시스템 구축 초기에 손해를 감소하고자라도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⁵⁰⁾ 이제 중소기업도 인터넷과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비즈니스에 익숙하나 이것이 무역전반에 걸쳐서 도입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비용 문제이다.⁵¹⁾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시스템 투자 및 교육훈련 비용문제를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8) 김태환·최석범, “전자신용장 거래 실무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0권 제3호, 2009년 8월, p.239.

49) 김태환·최석범, “전자신용장 거래 실무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0권 제3호, 2009년 8월, p.241.

50) 채훈·이대욱·최광호, “전자선하증권의 실용화를 위한 저해요인의 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13권 제4호, 2012년 11월, p.238.

51) 김희철·유수철·한상훈·김태환, “한국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이용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중앙대학교 전자무역연구센터, 9권 제1호, 2011년 p.38.

다섯째, e-L/C의 활용도가 높아져서 문자 그대로 Paperless Trade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상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은 많다고 해석된다. 이상옥·이정희(2006)는 e-UCP 자체가 주로 전자기록의 제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라고 할 수 있는 신용장 발행과 통지, 서류심사기간, 전자기록에 대한 인증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⁵²⁾ 따라서 e-UCP와는 별도로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옥·이정희(2006) 등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듯이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인증대책이 필요하다. 즉, 중립적인 인증기관의 설립과 그 요건의 강화, 전자신용장 관련 인증 가이드라인의 책정 및 인증서의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요청된다.⁵³⁾ 이와 관련하여 Pagnoni and Visconti(2010)가 제시하듯이, 전자선하증권의 경우도 보안 대책이 요구된다.⁵⁴⁾

V. 결 론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수출행위의 근본목적이 대금회수에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의 호황을 뒷받침해온 신용장의 전자화는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Paperless Trade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e-Nego 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e-L/C와 e-B/L의 활용도를 높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e-L/C와 e-B/L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무적인 사실은 개별은행에 대한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조사한 두 시중은행의 경우, EDI 신용장을 통한 신용장 통지에 있어서는 전체 신용장 통지의 절반에 이르는 등 전자신용장 활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학계에서 막연하게 신용장의 전자화가 여러 가지 저해요인으로 인하여 많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도한 거시적, 미시적 연구에서 보면, 아직 e-L/C는 그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52) 이상옥·이정희, “신용장 전자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7권 제2호, 2006년 6월, p.345.

53) 이상옥·이정희, “신용장 전자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7권 제2호, 2006년 6월, p.344

54) Pagnoni, Anastasia and Andrea, Visconti, “Secure Electronic Bills of Lading: Blind Counts and Digital Signature”,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Vol.10, 2010, pp.363-388.

만한 관점은 은행의 입장에서 e-L/C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서 시스템의 이원화에 따른 부담을 들 수 있다. 즉 종이신용장의 전자적 대체물인 EDI 신용장과 e-L/C를 병행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두 가지 종류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L/C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EDI 신용장을 폐기해야하느냐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미 수출신용장 통지에 있어서 EDI 신용장이 종이신용장에 육박할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 어느 시점까지는 두 종류의 전자신용장을 병존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관계자들이 특히 시스템 불안을 지적하고 있어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며, 법제도적 차원에서 상법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신용장의 완전한 전자화에 필수적인 선하증권의 전자화 정도는 신용장의 전자화에 비해서도 더욱 활용도가 미미하다. 그러나 국제해운물류업계는 지속적으로 전자선하증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비록 현재는 국제간 전자무역시스템의 연계가 미흡하고, 국제무역 관계자들의 저항 등 여러 가지 저해요인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지만, 적어도 수출신용장 통지에서는 EDI 신용장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Marusic(2012)에 의하면, 2008년 UNCITRAL이 제정한 국제화물운송협약인 Rotterdam 규칙에서는 선하증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배제하고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서 전자적 운송기록(electronic transport record)은 운송증권의 발행, 소지, 이전과 동일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전자적 수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⁵⁵⁾ 따라서 신용장 및 관련 선적서류의 국제적 추세는 전자화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파악하고 이를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무엇보다도 미시적 연구에서 단 두 곳의 시중은행 자료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추후 보다 폭넓은 자료 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일반화 도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5) 동 규칙에서는 전자적 운송기록도 양도가능한 전자적 운송기록과 양도불가능한 전자적 운송기록으로 나누인다. 이는 마치 종이 운송서류가 양도가능한 선하증권과 양도불가능한 해상화물운송장으로 나누인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로테르담규칙에서는 전자적 운송기록을 종이 운송서류와 양립하는 별개의 새로운 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Marusic, Miran, *A Gateway to Electronic Transport Documentation in International Trade: The Rotterdam Rules in Perspective*, Master Thesis. Spring 2012, p.52-61.

참 고 문 헌

- 곽윤직, 「물권법」, 제7판, 박영사, 2011.
- 김영훈, “신용장거래의 전자화시도에 관한 고찰: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7권 제3호, 2002년 9월, pp.59-77.
- 김은주, “신용장 거래상 전자운송서류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2권 제3호, 2011년 8월, pp.309-333.
- 김태환·최석범, “전자신용장 거래 실무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0권 제3호, 2009년 8월, pp.221-245.
- 김태환·최석범, “전자신용장 관련 국제법규상의 수용과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제9권 제2호, 2009년 6월, pp.285-310.
- 김희철·유수철·한상훈·김태환, “한국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이용 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자무역연구」, 중앙대학교 전자무역연구센터, 9권 제1호, 2011년.
- 고명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고찰: 불레로선하증권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21권 제1호, pp.249-271.
- 류승열·정윤세, “국제무역결제의 전자화 과제에 관한 연구: SWIFT FileAct 서비스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7권 제4호, 2012년 8월, pp.253-272.
- 문희철·임성범·문화·형정, “주요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비용분석: Bolero와 Trade Card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8권 제4호, 2007년 12월, pp.383-405.
- 심종석·정희원, “전자서명 관련 법제의 개선과제에 관한 일고찰: 전자서명과 전자 선하증권의 국제유통성 확보를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제10권 제2호, 2010년 6월, pp.59-75.
- 양석완, “개정상법상의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제22권 제1호, pp.343-370.
- 양준석, “WTO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9권 제3호, 2004년, pp.59-80.
- 오가열, “u-Trade시대의 전자신용장(e-L/C)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터넷 전자상거래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제8권 제3호, 2008년 9월, pp.133-153.
- 이상욱·이정희, “신용장 전자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e-

- 비즈니스학회, 제7권 제2호, 2006년 6월, pp.333-349.
- 이창숙·강원진, “신용장 거래에서 전자기록의 심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2권 제2호, 2010년 6월, pp.85-107.
- 장청·김종칠, “전자환어음의 발행과 송수신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2권 제3호, 2011년 8월, pp.335-359.
- 전자무역연구회, 「전자무역의 이해와 전개」, 브레인코리아, 2002.
- 정용균, “국제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결제방식에 대한 연구: 볼레로 프로젝트와 트레이드카드의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 강원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통권 제23호, 2005년 3월, pp.91-113.
- 정용균, “전자무역시대의 은행위기와 금융공급체인 구축을 통한 은행의 글로벌마케팅전략”,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7권 제1호, 2006년 3월, pp.241-263.
- 정윤세,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3권 제4호, 2011년 12월, pp.51-79.
- 정재우·박효용,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주요 국가별 전자무역 논의 및 동향 분석과 그 시사점”,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5권 제4호, 2010년 8월, pp.283-318.
-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통합한도관리 구축방안」, 2009.
-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e-Nego 시스템 구축현황」, 2009.
- 채진익, “글로벌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자신용장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향”,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3권 제1호, 2008년 2월, pp.71-96.
- 채훈·이대욱·최광호, “전자선하증권의 실용화를 위한 저해요인의 연구”, 「e-비즈니스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제13권 제4호, 2012년 11월, pp.221-244.
- 한민정·안병수, “UCP600하에서 전자적 서류 제시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5권 제5호, 2010년 11월, pp.303-326.
- 홍길종·김구태,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3권 제1호, 2012년 2월, pp.175-192.
- Bahram, Shomali, P., Nasser Saei di, Maryam T. Fard, and Shahram Behbahani, “Appearanc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s a New Innovation in Maritime Trade”, *Advanced Research in Economic and Management Sciences(AREMS)*, Vol. 6, November 2012, pp.238-245.
- Benston, George and Clifford, Smith Jr., “A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the Theory of Financial Intermediation”, *Journal of Finance*, May 1976, pp.215-231.

- Bons, Roger, W. H., Ronald M. Lee, and Rene W. Wagenaar, "Implementing International Electronic Trade Using Open-EDI", submission for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May, 1996, pp.1-15.
- Chung, Yongkyun and Yongwhan Park,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APEC Study Series, 02-02,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2.
- Coase, Ronald, "The Nature of the Firm", in Geoge Stigler and Kenneth Boulding (ed), *A.E.A. Readings in Price Theory*, Richard Irwin Inc, 1952, pp.331-351.
- Delmedico, Amedeo, "EDI Bills of Lading: Beyond Negotiability", *Hertfordshire Law Journal*, Vol. 1, pp.95-100.
- Ellinger Peter and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Oxford and Portland, Oregon, 2010.
- Ivarsson, Magnus, *World Wide Trade, A Manual Affair; A Study of the Current Position of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Goteborgs Universitet, 2011.
- Mei, Zhilang and John Dinwoodie, "Electronic Shipping Documentation in China's International Supply Chain", *Supply Chain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0, No. 3, 2005, pp.198-205.
- Mulligan, Robert, M., "EDI in Foreign Trade: A Perspective on Change an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Logistics Information Management*, Vol.12, No.4, 1999, pp.299-308.
- Marusic, Miran, *A Gateway to Electronic Transport Documentation in International Trade: The Rotterdam Rules in Perspective*, Master Thesis. Spring 2012.
- Pagnoni, Anastasia and Andrea, Visconti, "Secure Electronic Bills of Lading: Blind Counts and Digital Signature",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Vol.10, 2010, pp.363-388.
- Svensson, Bjorn, *Electronic Bills of Lading*, Master Thesis, Autumn 2010.
- Williamson, Oliver, "Transaction-Cost Economics: The Governance or Contractual Relatio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79, pp.233-261.
- Williamson, Oliver,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ree Press, New York, 1985.

ABSTRACT

A Study of the Scope and the Electroniza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in the Practitioner's Perspective

Yong-Kyun Chung · Jae-Yeon Jeong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and scope of electronization of Letter of Credit and examines the obstacles in the course of electronization of Letter of Credit.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dopts two track methodologies. First, we study the electronization of Letter of Credit in the macro perspective. It means that we analyze the scope and the extent of electroniza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in the national economy as a whole. Second, we utilize the case study approach to examine the electronization of Letter of Credit in micro perspective. In other words we examine individual commercial banks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data from two commercial banks out of four largest domestic banks in Korea. For example, we select two commercial banks in Korea and ask current status of electronization of Letter of Credit, i.e, the utilization of EDI L/C , e-L/C, and e-B/L. A major finding of our study is that the extent of electronization is not negligible in micro perspective as well as in macro perspective. In micro perspective, two commercial banks utilize EDI letter of credit in a critical sense. On the other hand, they seldom uses e-L/C and e-B/L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This study shows that major bottlenecks for the electronization of Letter of Credit are pessimistic perception of SME entrepreneurs toward the electronization of Letter of Credit and the high costs of system building. We conclude that unlike superficial perception, there is a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the electronization of Letter of Credit in micro perspective.

Key Words : Electronic Letter of Credit, EDI Letter of Credit, e-L/C, e-B/L